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 Grace Hansen -

금오공대 소식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T_ 054.478.7114 / F_ 054.478.7100
<http://www.kumoh.ac.kr>

JUNE 2019 / VOL. 184

금오공대 소식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Letter

발행일 2019. 6. 15.

발행인 이상철 편집인 정인희 편집실무 오유진

발행처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054)478-7078

주 소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디자인 애드게이트 054)456-3434

CONTENTS

Focus

- 04 개교 39주년 기념식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2019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선정
금오FC (Freshman College)

Together Kumoh

- 10 동문 인터뷰_이용범 국립농업과학원장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특강
가족기업 탐방_김영복 엘씨텍 (주) 대표이사

People 교수

- 16 학생의 반응에 대한 단상_송지혜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2019년 1학기 신입교수 소개

People 직원

- 24 KIT 칭찬 릴레이
직원 안보통일 체험교육
제74회 식목일 나무심기

People 학생

- 26 동아리 인터뷰_불모지대
발전기금 최우수 장학생_전자공학부 이유빈
KIT학생홍보대사 임명
제54회 발명의 날, 특허청장 표창

KIT News

- 30 (가칭)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구성된다
'금오야 축하해' 스페셜 푸드 데이 열려
산학협력 고도화 정책·현안 토론회 개최
'명예옷장 프로젝트' 호응
5G 융합산업 육성 업무협약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육군 종합정보비창 협약 체결
꿈, 나눔 진로 및 전공 체험 진행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국방정보화콘퍼런스 전시 참가

Culture

- 34 세계의 음악이야기-조진형 산업공학부 명예교수
갤러리 4, 5, 6월 초대전

KIT Love

- 39 발전기금 장학금 전달식
후원의 집 소개
발전기금 약정 및 기탁 명단
기탁자에 대한 예우
기부 약정서
발전기금 모금 안내

개교 39주년 기념식 개최

개교 39주년 개교기념일(5월 22일)을 맞아 5월 21일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철 총장을 비롯해 금시덕 총동창회장, 원종욱 대학원총동창회장, 그리고 교직원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38회 스승의 기념 정부포상 등 총 51명 수상 이상철 총장 “성장과 혁신의 길 함께하길”

기념식은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와 금강대상, 학술상, 공로상, 근속상 수여에 이어, 이상철 총장의 기념사 및 금시덕 총동창회장과 원종욱 대학원총동창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으로 대통령 표창은 기계공학과 이상우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은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가, 장관 표창은 화학소재융합공학부 김태오 교수 등 4명이 받았다.

아울러 개교 39주년 기념 표창으로 최근 3년 연속 상위 20% 이내의 강의평가를 받은 전임교원에게 수여되는 금강대상 수상자로는 건축학부 류성룡 교수가 선정됐다. 교육 및 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주어지는 학술상은 신소재공학부 김종복

교수 등 총 8명이 수상했으며, 특히 출원 및 경진대회 수상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한 학생 4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밖에 30년 근속상을 받은 전자공학부 오영석 교수, 학생처 최홍숙 팀장을 비롯해 총 51명이 이번 기념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철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9년간에 걸친 여러 구성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금오공대가 걸어왔던 성장과 혁신의 길을 모두 함께 꾸준히 걸어갈 때 금오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1980년 개교한 우리 대학은 정원 320명의 2개 학과(기계공학과 및 전자공학과)로 제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대학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1990년 3월 국립대학으로 개편됐으며 2004년 양호동 캠퍼스로 이전했다. 현재(2019. 4. 1.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총 9천여 명의 대학으로 성장했다.

수상자 명단



제38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 정부포상 (6명)

- 대통령 표창 : 이상우 (기계공학과)
- 국무총리 표창 : 주백석 (기계시스템공학과)
- 장관 표창 : 정인희 (화학소재융합공학부), 김태오 (화학소재융합공학부), 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한규필 (컴퓨터공학과)

개교 제39주년 기념 표창대상자

[교수]

■ 금강대상 (1명) : 류성룡 (건축학부)

■ 학술상 (8명)

- 교육상 최우수상 : 김종복 (신소재공학부)
- 교육상 우수상 : 신경욱 (전자공학부), Bilal Samuel Muhammad (교양교직과정부), 유귀영 (교양교직과정부)
- 연구상 최우수상 : 이현수 (산업공학부)
- 연구상 우수상 : 최호중 (메디컬IT융합공학과)
- 산학협력상 최우수상 : 하영철 (건축학부)
- 산학협력상 우수상 : 노재승 (신소재공학부)

■ 근속상 (18명)

- 30년 근속상 : 오영석 (전자공학부), 전홍우 (전자공학부), 채창현 (전자공학부), 최이준 (화학소재융합공학부), 이태원 (7계설계공학과), 김성동 (기계시스템공학과), 임은기 (컴퓨터소프트웨어 공학과), 신희균 (경영학과), 윤희수 (교양교직과정부)
- 20년 근속상 : 오우진 (전자공학부), 정해 (전자공학부), 이경희 (화학소재융합공학부), 이상우 (신소재공학부), 오충석 (기계시스템공학과), 김영학 (컴퓨터공학과), 이육기 (경영학과)
- 10년 근속상 : 공인엽 (전자공학부), 김진한 (경영학과)

[직원]

- 공로상 (7명) : 이동석 (사무국), 김미정 (교무처), 정미경 (학생처), 정현욱 (취업지원 본부), 이승한 (중소기업 공학컨설팅센터), 권기협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박명지 (종합학사행정실)

■ 근속상 (7명)

- 30년 근속상 : 최영규 (사무국), 최홍숙 (학생처), 이금화 (학생처)
- 10년 근속상 : 김인설 (기획협력처), 박수정 (종합학사행정실), 장재혁 (산학협력단), 한달연 (산학협력단)

[학생]

- 표창장 (4명) : 차민석 (전자공학부 4), 허수경 (전자공학부 2), 이거성 (기계공학과 4), 서정삼 (컴퓨터공학과 4)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 / 블라인드 면접 등 공정한 대입전형 노력

우리 대학이 5월 8일 발표된 교육부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대학에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중간평가는 대학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실시됐으며,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사업 참여대학 67개교 가운데 계속지원대학 57교가 선정됐다. 금오공대는 유형 I의 '특수목적형' 5개 대학에 포함됐다.

우리 대학은 보다 공정한 대입전형을 마련하고 고른 기회전형의 선발을 확대했으며 고교-대학 간 연계를 강화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 2개, 정시 1개 전형으로 간소화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 지역인재전형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고른기회 선발 비율을

2018년 전형대비 3.8% 증가시켰다.

또한,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공소개 → 전공 체험 → 전공 심화로 연결되는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운영, 전공탐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태형 입학관리본부장은 "우리 대학은 지역 학생들의 전공탐색 및 진로설계를 위해 공학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한 입학전형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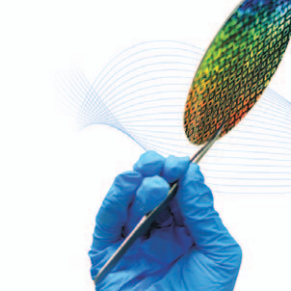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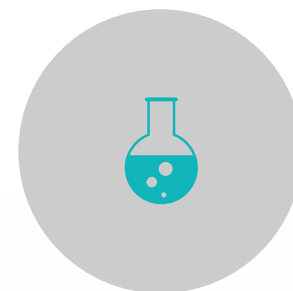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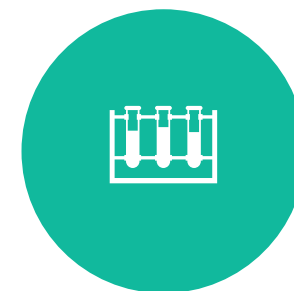
2019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선정

총 4천9백여만 원 예산 확보
노후 안전 장비 교체 등 시행

우리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이 사업에 우리 대학교 포함 총 15개 대학교가 선정됐으며, 연구기관 4개와 기업부설 연구소 6개도 함께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 대학은 총 4천9백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학분야 장비인 실험실용배기기(흡후드) 4대, 약품장 11대를 오는 7월부터 교체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노후 안전 장비 교체와 실험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비교과 프로그램,
금오FC (Kumoh Freshman College)

- 매년 신입생 대상 시행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멘티 관계 형성
- 전공 및 창의성 세미나, 소통 리더십 캠프 등 시행

지난 4월 25일 신입생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 연계 공학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앞에 펼쳐질 미래 세상을 공대생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 학생들은 진지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가? 또 그 역량은 어떻게 기를 것인가? 혼자서는 답을 구하기 힘든 그 질문 앞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물론 답은 결국 본인이 찾아야 하지만 이러한 특강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 것만으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기술은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비교과 특강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앞으로 진행될 비교과 프로그램도 기대가 됩니다”

광시스템공학과 1학년 박다운 학생은 신입생으로 경험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신입생으로 보내는 1년은 대학생활 및 진로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의 조기 적응을 돕고 향후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연계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생역량개발팀을 전담부서로 지정, 학생의 니즈를 반영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비교과 프로그램은 크게 △공동체 활동 △특강 △체험형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이 나누어 진행됐다. 천여 명의 신입생들은 멘티가 되어 멘토 선배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공유했다. 멘티 후배들은 멘토 선배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학의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른 신입생들과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며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높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학업역량 및 진로,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CDP시스템과 참·듣·난·큰인재상과 연계된 KIT인재인증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해 장기적 측면에서 학생 개별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는 생활관에 거주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2019년 올하는 전체 신입생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대했다. 또한 멘토링 활동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난해 멘티 30명 기준 1명이었던 멘토를 올하는 멘티 20명 이하 기준이 되도록 멘토 인원을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멘토·멘티가 직접 만나 신입생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강, 공동체 활동,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해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소방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등과 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전공 관련 세미나 등이 실시됐다.

올해 하반기에도 신입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하고 멘토·멘티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다. 신입생의 조기 대학생활 정착을 돕고 내실 있는 학업과 진로 준비에 임하도록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비교과 프로그램’, 협력적 선-후배 관계에 기반한 학생 중심의 학습 지향적 캠퍼스 문화 구축이 금오FC의 최종 지향점이다.



■ 비교과 프로그램 멘토-멘티 구성

구분	멘토	멘티	비고
2018-1학기	42명	1,148명	멘토 1인 멘티 29.4명
2018-2학기	40명	1,048명	멘토 1인 멘티 27.5명
2019-1학기	62명	1,238명	멘토 1인 멘티 20명 이하

■ 2018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내 용	참여인원
특강	• 금오 공학콘서트 • 창의 융합형 인재의 진로 로드맵 • 대학 생활을 위한 대인 관계 이론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음주예방교육	3,488명
체험 프로그램	• 심폐소생술 28회 •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8회	1,213명
공동체 활동	• 장학금 안내, 대학생활 상담 등 2회 • 멘토-멘티 자유주제 선정 활동 6회	2,999명
대학정책 연계 프로그램	• KIT인재인증 및 K-CDP프로그램 54개 연계 (1인 연간 10시간)	5,006명
총계		12,644명

■ 2019년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 용
특강	[공통필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사람] 대학생들을 위한인성교육 등 [문사람] 공학도의 미래 / 나의전공 공부 방법 [문사람] 잠재고 있는 너의 창의성을깨워라 등 [문사람] 글로벌 리더십 / 리더십에미치다
공동체 활동	[멘토-멘티 주도활동 (연 8회)] • 멘토-멘티대면 및 1:1 상담 • KIT인재인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생활관 소방훈련 참여 등
체험형 프로그램	• 선배와의 만남 / 전공 관련 세미나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 창의성 세미나 • 소통·리더십 캠프
연계 프로그램	• K-CDP 및 KIT인재인증 프로그램 참여 (독서인증제, 학습공동체, 자격증취득 강좌 등)

동문 인터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이 용 범
(80학번 기계공학과)

남들과 다른 사고로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해 나가는 대학생활이 되길...

정부 농촌진흥청 소속의 연구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을 견인해 왔다. 최근 급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농업환경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과학 영농의 실현을 이루고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이용범 원장을 만나 보았다.

“공학도가 과학자가 되어 공직자로서 농업이라는 산업 속에 몸 담게 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고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일단 대학을 가야겠다는 결심이 들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시작하게 된 공부가 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금오공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설계전공의 공학도가 현재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언뜻 물음표를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농업은 농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이 집적된 종합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토양, 수질, 품종, 생산시설 및 기계 등 어느 하나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최적의 농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지금도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이용범 원장은 6급 연구직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1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다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살아오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았을 때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온 길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또한 조직,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는 손해보고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제가 가진 능력과 역할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을 향한 진심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문명의 발전은 과학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방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 기존 프레임에 갇히지 않길 바랍니다. 갇히는 순간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밖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화를 주는 사고’는 멈추지 않는 호기심과 열정에서 생겨납니다.

당연한 것을 왜 당연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금 서 있는 그 공간에서 멈추지 않기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해 나가는 대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오공대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연구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며 농업공학연구소 기초기술공학과장,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과장, 농업공학부장, 연구정책국장, 4차산업혁명대응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국립농원과학원장으로 임명됐다.



추귀홍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특강



‘한·중 관계의 오늘과 미래’
주제 - 양국 발전 위한 상호
노력, 역할 당부



지난 3월 15일 우리 대학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주한 중국대사 초청 특강이 열렸다. 구미시 초청으로 우리 대학을 방문한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 관계의 오늘과 미래’라는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는 2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중국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추귀홍 대사는 발전적, 역사적, 객관적 관점으로 바라본 한·중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상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유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세계무대에서 경제·문화 성장의 동력원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동반자적 관계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유학생으로서 이번 특강의 사회자로 참여한 이문혁(LI WEN HE·건축학전공) 학생은 “추 대사께서 양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금오공대에서 열심히 공부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본관 총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이상철 총장과의 간담회에는 장세용 구미시장, 김한규 21C 한중교류협회장, 우리 대학 본부보직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추귀홍 대사는 상하이외국어대학 졸업 후 1981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서 근무했다. 주일 대사관 서기관(1983), 주네팔 대사(2008)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4년부터 대한민국 주재 중국대사를 지내고 있다.



가족기업 탐방



‘사람’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다

김영복 엘씨텍(주) 대표이사

1998년 9월 설립된 엘씨텍(주)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엘씨텍(주)은 지역의 대표적 국방벤처기업 가운데 하나로, 국내 유도탄 생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도탄에 들어가는 전동기(모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의 70%가 바로 엘씨텍(주) 제품이다.

엘씨텍(주)은 군사용 유도무기에 필요한 전동기와 구동 메커니즘, 시험 점검 장비 등을 개발·생산하며 유도무기 구동분야의 토털 솔루션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대학과는 2001년 산학협력 체결이후 다양한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년 전 회사 창립 당시 13명의 인원만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회사가 성장한 데는 김영복 대표의 ‘사람’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 마인드가 중요한 길잡이가 됐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품질이 기업의 생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력과 품질은 모두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회사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씨텍을 구성하는 임직원 가운데 연구직이 30%를 차지하며 기술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김영복 대표는 재직자에게도 자기계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금오공대에서 수학하는 재직자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기탁,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도 실습 및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자연스럽게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엘씨텍(주)은 다양한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2017년에는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회사를 경영해오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할 수 있다는 ‘열정’과 회사 구성원들의 ‘배려’,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통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방위산업 분야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998 법인 설립
- 1999 벤처기업 등록(대구·경북 중소기업청)
- 2001 금오공대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 2002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 2013 국방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2017 이달의 우수기업 선정(구미시)
- 2017 국가생산성대회 수상(국무총리 표창)

학생의 반응에 대한 단상(斷想)

송 지 혜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나는 학생의 반응을 갈구하는 교수

이 글을 읽으시는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질문하시거나 이해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학생들이 잘 대답하고 반응하는지요? 학생들이 잘 반응해 주는 교수님이시라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교수님의 교수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반대로 학생들이 반응해 주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교수님이시라면, 동병상련을 느끼는 제가 가서 맛장구쳐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은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면 대답을 잘 하나요? 강의 내용을 이해했을 때는 고개라도 끄덕이나요? 알면서도 또는 이해했으면서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강의 시간마다 학생들이 기대만큼 반응해 주지 않아 상처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학생들의 반응을 갈구하는 교수입니다.

너희, 가수 공연에는 반응하더구나!

학생들의 반응이 신통찮으면 제 교수법이나 강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 볼까 궁리하다가, 그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어디서든 반응 자체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와 동병상련하는 차지인, 제 옆 연구실에 계시는 교수님도 이번 학기에 학생들이 크게 반응해 주지 않아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신입생 환영 행사가 열리자 그 행사의 일환이었던 초대 가수의 공연 동영상을 일부러 찾아 봤답니다. 그러고는 다음 강의 시간에 말했다지요.

“보니까 너희들, 가수 공연에는 막 소리 지르고 반응하더구나!”

반응할 줄을 모를까봐 걱정하다가, 반응할 줄 인다는 사실에 그 교수님은 안도하셨답니다. 참 착한 교수님이지요. 그 사실을 들은 저는 학생들이 가수에게는 반응하면서 제게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상처를 받았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비교이니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16주 동안 매주 같은 가수의 공연을 봐야 한다면, 게다가 저처럼 매주 아침 9시에 만나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를 일이지 않겠습니까?

학생의 칭찬은 교수도 춤추게 한다.

“네.” 이 말 한 마디가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강의에서 대답하는 학생이 있으면 마음으로는 얼른 가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소심한 나머지 강의 시간에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더라도, 강의 평가에 좋은 평을 적어주는 학생도 있습니다. 더 흔치 않지만 시험지에 반응의 글을 남기는 학생도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학생들의 무반응에 좌절하고도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고마운 소수 학생의 반응입니다. 한 학기에 한 명이라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 그 기억을 되새기며 다음 학기 강의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이번 학기에 적어도 한 명은 저로 인해 삶의 즐거움과 표현의 즐거움, 삶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을 거라 최면을 걸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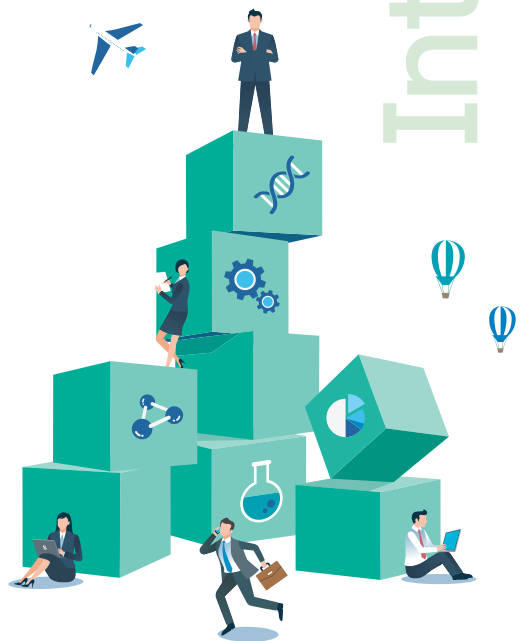
아, 저는 오늘도 학생의 대답에 목마릅니다.



2019년 1학기 신임교수 소개

이현철 / 노승준 / 이원호 / 이희란 / 박준동 /
윤민호 / 김민석 / 김성렬 / 이민호

Interview



전자공학부
신임교수

이현철



①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금오공대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학기, 학교생활 적응과 강의 준비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출근할 때마다 뭔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함께 하게 될 학생들 및 동료 교수님들과 실현해 가고 싶습니다.

②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제 전공은 로봇틱스 및 지능형 임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어릴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지만 사실 로봇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공이 저와 너무 잘 맞았고, 지금까지 이 전공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봇 자율주행과 관련된 SLAM, 레이저 스캔 매칭, 경로 계획, Kalman 필터, 파티클 필터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고속 무인 비행체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시스템 및 레이저 신호 처리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했습니다.

③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로봇틱스 및 지능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알고리즘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기종(heterogeneous) 프로세서 기반의 연산 가속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극한 환경에서 다수의 로봇을 실시간으로 운용해야 하는 국방 및 재난 환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및 Edge Computing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자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의 학습 및 발달을 돕는 지능형 의료 시스템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①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금오공대의 일원으로 임용되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학기를 돌아보면 주로 학교생활 적응과 강의준비에 많은 시간을 쓰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컸던 만큼 걱정도 되었지만 선배 교수님들의 세심한 배려 속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강의와 연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②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학부 3학년 시절 캡스톤디자인 교과를 통해 건축물이 이야기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관리/저감하는 기술(건축물 전과정 평가기술)을 접한 후, 건축물 성능평가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연구생부터 대학원(석사/박사) 및 Post-Doc. 기간 동안 건축물 전과정 평가기술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환경/경제/사회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의 계획과 건축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이 최초 건설되고 사용되며 이후 해체될 때까지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는 기술(건축물 전과정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리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③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주로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건축물 전과정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리기술을 시스템화하여 실무에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멀티스케일 개념을 통해 건축 재료부터 건축 부재, 건축물, 건축 단지 등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건축시공 기술에 사물인터넷(IoT), Cloud, 빅데이터, 모바일, 드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에 새롭게 도전하여 변화하는 미래 시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건축학부
신임교수

노승준



화학소재융합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신임교수

이원호



①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눈코 뜰 새 없이 첫 학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차고 즐거운 일이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며 소통했던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느낌이 학위과정 때는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실제 경험해 보니 기대 이상으로 즐거움과 보람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마음가짐을 잘 간직하여 학생들에게도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②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석·박사 과정 중에는 전도성 고분자를 합성하고 이를 유기태양전지에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컸고,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박사 후과정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라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전공을 조금 선회하여,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이를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③ 앞으로의 계획

학위 및 박사후과정 기간 동안에도 했던 고분자를 이용한 에너지 소자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타 분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과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에 있어서도 제가 맡은 강의에 최신 연구동향을 적절히 녹여내어 학생들이 좋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화학소재
융합공학부
소재디자인
공학전공
신임교수
이희란



❶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금오공대에 임용되어 설렘과 걱정으로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학생들도 익숙해지면서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고 학교의 풍경도 친근해지면서 조금은 금오인이 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 교수님들을 도와 학교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❷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학부때 의복인간공학, 감성공학, 의복환경학 등 어패럴공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의복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계속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패럴공학은 인체와 의복소재 뿐 아니라 전산분야, 설계분야, 감성평가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들을 테크니컬 의복설계에 접목하고 이를 평가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위해 석사 때부터 전산기하학, 프로그램 설계 등 다양한 전문지식을 공부하였으며, 타 학과와 산업체와의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compression wear,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스마트웨어, 화운데이션, 방탄복, life jacket 등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ICT기술과 같은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의복을 개발하였습니다.

❸ 앞으로의 계획

최근에는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동작 및 온열패적성이 고려된 스노보드 보호복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동 발열되는 스마트 베이스레이어나 근전도 측정이 가능한 3D 스마트 스포츠웨어를 연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

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체의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웨어나 헬스케어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와 최신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여 산업현장에서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학소재
융합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신임교수
박준동



❶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금오공대에 임용되어 기뻐하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첫 학기가 마무리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설레고 기쁜 마음, 그리고 교수로서 주어진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환한 미소로 대해주는 학생들, 그리고 늘 많은 도움을 주시며 배려해주시는 여러 동료 교수님과 교직원분들 덕분에 참 행복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훌륭한 교육자, 연구자, 그리고 동료교수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❷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제 전공은 유변학(Rheology)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생소

할 것 같은데요, 유변학은 물질의 변형과 흐름에 관한 학문입니다. 유변학은 학문적으로 인류의 오랜 물음의 하나인 “물질은 어떻게 흐르는가?”에 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는 3D printing, Printing electronics, 그리고 다양한 coating과 같은 대부분의 제조 공정에서 물질이 유체의 형태로 가공되며, 이들 유체공정을 제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 시절부터 물리화학, 유체역학과 같은 물리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리학적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유변학을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❸ 앞으로의 계획

제 목표는 연구실을 학문적 연구와 산업적 응용이 잘 조화된 유변학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산업에서 유변학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기초적인 이론 연구에서부터 다양한 산업적인 응용까지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유변학에 대한 산업적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된 연구역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산업적 응용의 근간이 되는 이론 유변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합니다. 저는 제 연구실을 이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그러한 연구들이 산업적 응용으로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는 유변학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계공학과
신임교수
윤민호



❶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금오공대 기계공학과 신임 교수로서 학교의 일원이 되어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업 준비와 학교생활 적응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냈지만, 보람과 기쁨이 넘쳤던 첫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 교수님들을 도와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와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❷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전산역학에 기반한 최적설계를 전공하였습니다. 최적설계는 제품의 생산단가 및 설계조건 등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적의 설계값을 찾는 연구 분야입니다. 저는 특히 구조 기반 최적설계를 전공하였는데, 기존의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던 유한요소모델 기반의 최적설계 기법을 단점을 보완하는 CAD 기반 최적설계기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최적설계는 모든 산업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적용성이 높은 학문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생각되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❸ 앞으로의 계획

기존에 연구하였던 CAD 기반 최적설계 기법을 확장시켜 구조-유체 연성 문제와 전기모터에 대한 최적설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주요기기 시스템 설계 경험을 살려 IDT(Inter-Digital Transducer) 센서를 이용한 배관감육(Pipe wall thinning) 형상복원기술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적설계 기법과 AI는 최적 변수값을 찾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I에 기반한 최적설계 기법도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계시스템공학과 신임교수 김민석



❶ 신입교수로서의 소감

먼저 금오공대에서 신임교수로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학교와 학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친근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❷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학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 유체역학을 공부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흐름을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으로 풀면 모두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과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학부 세미나에서 마이크로/나노공학을 접하게 되었고, 작은 세계에서 펼쳐지는 기존의 통념과는 다소 다른 물리현상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유체역학과 마이크로/나노공학의 접점에 미세유체공학(Microfluidics)이 있었고, 이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특히 미세유체공학은 단위세포나 화합물질과 유사한 차원에서 유체 및 입자의 거동을 이해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바이오공학이나 화학공학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❸ 앞으로의 계획

‘미세유체공학 및 나노바이오시스템 실험실’에서는 마이크로/나노미터 스케일의 초정밀 형상 제작기술과 이러한 미세유체에서 발생하는 특이적인 유동 및 물질전달 현상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바이오분석 및 바이오공정 자

동화(Lab on a Chip), 체외진단 및 병원성인자 검출(In-vitro diagnosis & biosensing), 환경오염 모니터링(Pollutant management) 등 인류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계-바이오 융복합 공학기술 및 바이오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 학문/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기계계열뿐 아니라 여러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바이오/환경 분야의 현안들을 마이크로/나노 유체공학을 이용해 해결하고 싶고, 이러한 과정에서 융복합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힘쓰고 싶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공학과 신임교수 김성렬



❶ 신입교수로서의 소감

임용면접을 위해 처음으로 금오공대에 왔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면접시간이 남아 학교를 산책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가 나의 직장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바와 같이 여기가 참 좋습니다. 아직도 학생들의 깃뚫한 인사가 어색하지만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는 고마운 학생들에게 교수님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3년을 함께한 것과 같이 편안하게 해주신 선배 교수님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학교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뽑아주시는 학과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교수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❶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대학원 과정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나만의 전공분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수행한 다양한 프로젝트 중, 수중통신 연구가 있었고 그 희소성에 매력을 느껴 수중통신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파를 이용하는 지상 통신과 달리 수중통신은 음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또한 수중통신에서는 반사되는 신호에 영향을 많이 받아 에러가 잘 발생하며 심각한 신호감쇄로 인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더 멀리, 더 빠르게 신호를 보내느냐가 연구의 핵심주제입니다.

❷ 앞으로의 계획

최근에는 LPWAN이라 불리는 저전력/장거리 통신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LPWAN기술 중 LoRa라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망을 관리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함께 기존 LoRa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LoRa게이트웨이를 학교에 설치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LPWAN기술이 접목된 IoT 시스템 개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IoT기술을 저의 오랜 연구 주제인 수중통신에 적용하여 다양한 해양응용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교양교직과정부 신임교수 이민호



❶ 신입교수로서의 소감

전임교원으로 임명이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옛그제 설렘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벌써 한여름의 입구에 와 있습니다. 강의 준비, 학교생활에의 적응, 연구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금오공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❷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물리학은 엄청난 크기의 우주라는 세계로부터 아주 작아 보이지도 않는 원자 세계까지의 자연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매료되어 물리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중에 원자 세계, 주로 이-전자원자(예로 헬륨)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양자역학적 수치 방법으로 계산하고 이것을 준고전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자 원자는 전자와 전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고전적으로 혼돈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사실과 양자역학적 현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수치 방법을 개선 개발하고도 있습니다.

❸ 앞으로의 계획

우선, 교양과목인 일반물리학을 좀 더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타전공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고민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과 연관된 연구로, 양자 혼돈, 초고속 전자 동역학, 비선형 동역학을 계속 연구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하다 얻게 된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로 wave modelling도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컴퓨터로 연구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연관된 양자 컴퓨팅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칭찬 릴레이



이 상 현 선생님 _ 공학종합실습센터 근무

▶ 추천 사유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연구활동 및 실험실습을 통해 공학 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현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 추천인

이재열 선생님(시설안전과 근무)



이강 욱 선생님 _ 사무국 총무과 근무

▶ 추천 사유

언제나 밝고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 대학과 구성원의 살림을 챙기는 이강욱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 추천인

이상현 선생님(공학종합실습센터 근무)



류 정 희 선생님 _ 학생처 학생복지팀 근무

▶ 추천 사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류정희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 추천인

이강욱 선생님(사무국 총무과 근무)

김 양 현 선생님 _ 종합학사행정실 컴퓨터공학과 근무

▶ 추천 사유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김양현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 추천인

류정희 선생님(학생처 학생복지팀 근무)



직원 안보통일 체험교육 및 봉사활동 시행 현충원 내 묘역비석 닦기 봉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직원 안보통일 체험교육 및 봉사활동’이 시행됐다.

지난 5월 29일 국립 대전 현충원에서 이뤄진 체험교육 및 봉사활동에는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현충탑 및 묘역 참배를 하고 현충원 내 묘역 비석 닦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19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국가의 성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통해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

제74회 식목일 나무심기

교내 본관 서편 임야, 편백나무 200주 식재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교내 본관 서편 임야 일원에서 식목 행사를 가졌다.

학내 임야의 건강한 숲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이상철 총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편백나무 200주를 식재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식목일을 기념해 교직원이 참여하는 식목 행사를 개최하여 캠퍼스 내 환경 개선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동아리 인터뷰

불모지대

Interviewee

회장 하수민(컴퓨터공학과 · 3)

1. 불모지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87년 정식으로 동아리 승인을 받은 이래 33년 동안 금오공대의 극예술연구회 연극동아리 ‘불모지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모지대는 ‘황량한 불모지에 하나의 새싹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하여 약 50여 명의 학생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 조명 및 음향 스태프, 메이크업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고 연극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3.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1학기에는 신입생들과 함께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연극’을 시작으로 2학기에는 방학 때 준비해서 선보이는 ‘개강 공연’과 ‘정기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다른 무대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연극은 한 무대를 준비하기까지 오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여 공연에 대해 연구하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대학로 연극관람도 가고 친목활동도 하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4.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처음 공연한 연극이 기억에 남습니다. 리허설 때는 분명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서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며 온 몸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함께 무대를 준비한 선배들을 믿고 곧 집중해서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떨렸던 첫 순간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 몇 번의 무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무대에 서는 이유가 아마도 그 떨림이 기분 좋은 떨림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5.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나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연극할 때마다 새로운 대본을 찾는 것부터 배역을 정하고 의상을 맞추며 음악을 고르는 작업이 매번 반복됩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연습해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각자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장애물(?)들을 다 뛰어 넘어 공연 당일 모든 것을 무대에서 보여주고 난 후 해냈다는 자신감, 만족감 등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6.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부탁드립니다.

신입생부터 여러 동아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연극무대를 보고 나도 저 무대에 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막연했던 생각이 실현되고 어느덧 동아리 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고 즐거운 동아리가 되도록 서로 소통하며 지내겠습니다.

7. 동아리의 목표가 있나요?

불모지대는 학교 내에서 연극이라는 장르의 부흥을 선도하는 동아리입니다. 연극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다가서기 힘들 수 있지만 한 번만 접해보신다면 분명 새로운 재미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보러 와 주시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진심과 열정을 다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불모지대인들이 보여드릴 연극, 기대해 주세요!



나에게 불모지대는 000이다

하수민(컴퓨터공학과 3학년)

나에게 불모지대란 그저 빛이다. 막막한 대학생활에 어둠을 밝혀 주었기 때문이다.

서도현(전자공학부 2학년)

나에게 불모지대란 블랙홀이다. 헤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윤보(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4학년)

나에게 불모지대란 컴파일러다. 내 잘못된 점을 찾게 해주기 때문이다.

김현진(컴퓨터공학과 3학년)

나에게 불모지대란 학점이다.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일만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발전기금 최우수 장학생 인터뷰

이유빈 (전자공학부 4학년)

Q. 입학 당시 전체수석으로 4년 장학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주위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전체수석으로 입학한다고 하셔서 저 또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입학식 날 전체 장학금 수여식 할 때 처음 겪는 경험이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 같은 학과 친구들이 저를 알아보며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해 줄 때면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지금 4학년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공부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날 배운 내용은 최대한 그날에 복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시험기간에 밤새워서 공부하거나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쌓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컨디션에 시험을 칠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으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회로연구회 동아리 ECRC에 가입하여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동기들과 친해지며 학교생활을 적응해 나갔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 영어 공부나 자격증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 공부를 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현대에 꼭 필요한 반도체나 전기 에너지 등 없어선 안 될 분야를 맡으며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Q. 발전기금 장학금은 이유빈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나요? 혹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대학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발전기금 장학금이라는 귀한 기회를 제가 누리게 해 주심에 먼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시키며 지금의 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지 않으나 싶습니다.

Q. 혹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학창 시절에 막연히 공학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공부를 하며 제가 흥미를 가지는 전공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도 명확하지 않은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으며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뿐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찾아온 기회처럼요.

제20기 KIT학생홍보대사 임명

새내기 7명, 대학홍보 앞장
대내외 행사 지원 등 이미지 향상 기여



제20기 KIT학생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이 4월 15일 본관 7층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임명식에는 △박성효(전자공학부) △박찬진(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서연우(산업공학부) △송은정(산업공학부) △이민준(기계시스템공학과) △임진수

(전자공학부) △정현수(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등 7명이 홍보대사에 임명됐다.

신임 학생홍보대사에 임명된 박성효 학생은 “학교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대학이 가진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

도록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KIT학생홍보대사는 입학식 및 졸업식 등 대내·외 행사 지원을 비롯해 학교 홍보 콘텐츠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54회 발명의 날, 특허청장 표창

산업공학부 최지웅 학생 선정

국내·외 대회 18건 수상 등 창업·발명 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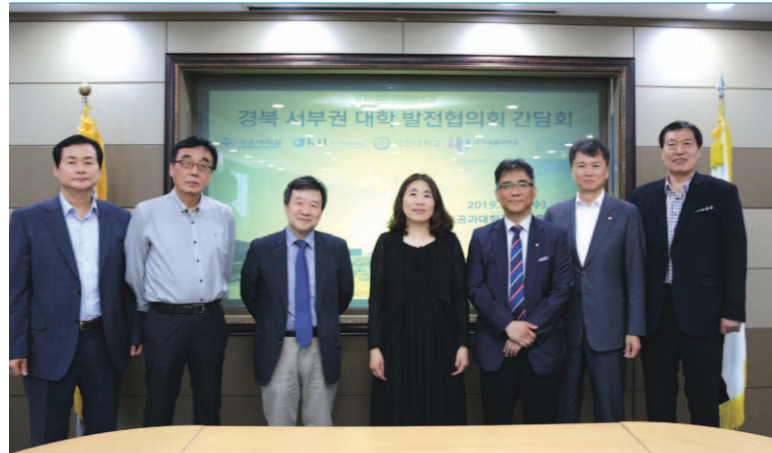


산업공학부 4학년 최지웅(남·26) 학생이 5월 27일 서울 COEX에서 열린 ‘제54회 발명의 날’기념식에서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지웅 학생은 발명·창업 분야의 발명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창업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국내·외 발명캠프 및 발명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14건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 또

한 2017-2018 서울 국제발명전시회 은·동메달, 대만 국제발명전시회 금메달 등 5건의 국제대회 수상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서 주최하는 13건의 국내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발명품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같은 학과 조규민 학생과 ㈜이노빙을 설립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지웅 학생은 “경험을 통해 떠오르는 생

각을 기록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열정으로 이끌어 주신 김선아, 조영준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제48회, 제50회, 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도 특허청장상, 한국발명진흥회회장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가칭)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구성된다

금오공대 중심 지역 6개 대학 합의
대학 간 협력 통해 지역·대학 상생 노력

우리 대학을 비롯한 지역 6개 대학이 ‘(가칭)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5일 교내 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인희 기획협력처장을 비롯해 이상관 경운대 기획처장, 이재우 김천대 기획평가실장, 김동욱 구미대 기획행정처장, 채승용 경북보건대 기획처장, 이재직 한국폴리텍VI대학 구미캠퍼스 교학처장이 참여했다.

이날 6개 대학 기획 부서장들은 경북 서부권 대학의 공동 발전 및 상호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각 대학이 가진 자원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지역 초/중학교 대상 멘토·멘티 지원 △지역사회 발전 공헌 사업 △국·사립 대학 간 연계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 ‘(가칭)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인희 기획협력처장은 “(가칭)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가 각 대학이 보유

한 우수한 장점과 교육 인프라를 상호 공유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전협의회 간담회에 이어 실시된 경상북도에서 주관의 ‘2019년 도·시·군 간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자체·지역대학 간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오야 축하해’ 스페셜 푸드 데이 열려

‘제39회 개교기념일 맞이’ 특별 행사
총 1,012명의 학생 및 구성원 함께해

지난 5월 21일 학생식당에서 6번째 ‘스페셜 푸드 데이(Special Food Day)’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제39회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생들과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로 시행됐다.

이번 스페셜 푸드데이에는 한국 생일상을 주제로, 찰흑미밥, 소고기 미역국, 돼지갈비찜, 잡채, 새우튀김, 삼색전, 미니케이크가 제공됐으며, 총 1,012여 명의 학생 및 구성원들이 이용했다.

행사를 주관한 학생처는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스페셜 푸드 데이를 비롯해 천원의 행복한 아침밥, 클래식 강연, 금오공대갤러리 초대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산학협력 고도화’ 정책·현안 토론회 개최

지역 산·학·연 상생 발전 위한 방안 모색
정시영 사무국장, GERI 김용배 미래전략
기획단장 발표



우리 대학이 지난 5월 28일 교내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정책·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우리 대학 정시영 사무국장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김용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각각 ‘현 정부의 고등교육 및 산학협력 정책’, ‘구미 산업단지 현황 및 신성장 동력’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시영 사무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따라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 자율성 및 투자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신산업의 수요 분석과 산·학·연의 공간적 융합을 통해 산학협력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배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지역 산업의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신산업 전략을 파악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 기업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산학협력이 이뤄질 때 미래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선 대학과 지

역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인희 기획협력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산학협력의 현주소를 면밀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대학 구성원이 모여 대학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개 토론하고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 정책·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명예옷장 프로젝트’ 호응

스승과 제자의 ‘명예 나눔’ 실천
수익금 지역 사회 기부



지난 4월 30일 우리 대학 금오공대갤러리 앞 쉼터에서 ‘명예옷장’ 프로젝트가 열렸다. ‘명예옷장’은 교수의 추억이 담긴 옷을 기부 받아 학생들이 좋은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지난해부

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구정호 교수(경영학과)와 김선아 교수(산업공학부)가 이끄는 ‘블루치즈’팀이 기획했다. 융합 PBL(Project-Based Learning) 교육의 일환으로 경영학과와 산업공학부 윤성찬, 이동언 학생 등 15명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다. 명예옷장을 통해 거둔 70여만 원의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 아동옹호센터에 기부될 예정이다. 명예옷장 프로젝트는 참여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공유 가치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



5G 융합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오공대, 경북도, 구미시, ㈜KT, 구미전자
정보기술원 등 5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통해 5G 융합산업
선도 기대

지난 3월 20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경상북도, 구미시, ㈜KT,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함께 ‘지역 발전과 5G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철 총장을 비롯해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장세용 구

미시장, 구현모 ㈜KT 사장, 박효덕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은 △구미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시험인증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스마

트시티 구성 △5G 체험관 및 기업홍보관 구축 △경북지역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5G 산업생태계 조성 △5G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및 스마트캠퍼스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육군 종합정비창
협약 체결

IoT 기반 정비기술 개발과 연구 분야 등
협력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가 지난 4월 9일 육군 종합정비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육군 종합정비창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무기체계의 ICT 및 IoT 기반 정비기술개발과 연구 분야’에 대한 상호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업무 협약을 맺은 육군 종합정비창은 전

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차량, 항공·통신·의무 장비 등 육군뿐만 아니라 국군 전체에서 사용되는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실시하는 군수 지원 부대이다.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과 이기중 종합정비창장(예비역 준장)은 △무기

체계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분야 △IoT 기반 정비기술 연구 분야 △연구 인력, 정보, 시설, 장비 등의 공동 활용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꿈, 나눔 진로 및 전공
체험’ 진행

지역 4개 대학 공동 개최, 울산지역 고교
방문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일환



우리 대학이 6월 12일 지역 3개 대학과 공동으로 울산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꿈, 나눔 진로 및 전공체험’을 개최했다. 이날 우리 대학을 비롯한 경북대, 안동대, 계명대 등 4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재학생, 관계자 800여 명은 울산 남목고와 화암고를 방문해 1,000여 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가졌다. 우리 대학은 공학계열 진로 탐색의 일환으로 △파스칼의 원리를 통한 실생활 속 유압 장치 이해 △LED 스탠드로 알게 되는 전자공학의 기초 △항수와 종류 등의 프로그램 마련했다. 이밖에도 4개 대학이 준비한 24개의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김태형 입학관리본부장은 “고교교육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동사업과 더불어 앞으로도 필(必)&필(Feel) 전공체험, KIT 사이언스랩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국방정보화 콘퍼런스
전시 참가

군용 원격 조정형 로봇 등 전시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방정보화 콘퍼런스’에 참가해 그동안 진행해 온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전시했다. 국방 정보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국방정보화 콘퍼런스는 산학연 및 정부,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

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개혁’을 주제로 국방 분야의 정보화 관련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들이 전시됐다. 우리 대학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해 군용 원격 조정형 로봇 등을 전시,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4년

부터 민·군 ICT융합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실적 발표 및 개발품 전시를 통해 국방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의 음악이야기

RIVAL 라이벌



1908~1989
Herbert von Karajan

1912~1996
Sergiu Celibidache

1946년 20세기 최고 지휘자 푸르트벵글러(독일, 1886~1954, Wilhelm Furtwängler)가 나치 협력 전력으로 베를린 필의 상임 지휘자직을 반강제로 내려놓게 된 얼마 후, 베를린 필의 지휘봉을 잡은 첼리비다케(루마니아, 1912~1996, Sergiu Celibidache)는 1952년 푸르트벵글러가 베를린 필 무대에 복귀할 때까지 7년간 상임 지휘자로 있었다. 그러나 푸르트벵글러 타계 후 1955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선거에 의해 후임이 정해졌는데, 다소 혹독했던 첼리

비다케 대신에 카라얀(오스트리아, 1908~1989, Herbert von Karajan)이 선출되었다.

카라얀은 깊은 음악 세계를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구도 등에 장점이 있고, 아주 넓은 레퍼토리에 음반 녹음도 꺼리지 않는(첼리비다케와 푸르트벵글러는 싫어했음) 상업적 감각을 지닌 현대적(?) 지휘자였다. 말년에는 단원과의 불화도 있었지만 오랜 재임기간 동안 베를린 필을



흔히 대조적인 평가를 받으며 비교되는 카라얀과 첼리비다케는 각자 최선을 다해 그들의 음악세계를 추구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런 분들이 우리들의 단순하고 지루한 시간적 흐름을 그 무엇에다 아름답게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조진형 명예교수(산업공학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단연 세계 1위의 오케스트라로 만들었고, 유지시켰다. 또한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이라는 아주 멋진 음악당을 만들고 음악의 영상화에도 크게 기여한 슈퍼스타이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제3의 도시이기도 한 인구 20여만 명의 잘츠부르크를 가면 2명의 스타가 있다. 단연 그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은 모차르트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유명한 다른 한 자리의 주인공은 카라얀이다. 유럽 최대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모차르트를 기리기 위해 1920년부터 매년 7~8월에 열리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부침을 겪었지만 전쟁 후 카라얀의 노력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필자에게도 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관련된 기억이 있다. 오래 전 학회 참석 시 뮌헨에 갔을 때다. 일정이 비는 주말에 가차로 뮌헨에서 2시간 거리인 잘츠부르크에 가서 페스티벌의 한 행사인 빈 필 연주를 참관한 적이 있다. 지휘는 뉴욕 필의 상임 지휘자였던 볼레즈(프랑스, 1925~2016, Pierre Boulez)였고, 레퍼토리는 빈 필의 상임지휘자를 짧은 기간 맡기도 했던 말러의 교향곡 4번* 등이었다. 좋은 음향과, 훌륭한 연주였다.

반면 첼리비다케에 대해 한 평론 사이트에서는 ‘에드먼드 허셀의 현상학 이론과 선(禪) 불교를 기본으로 하여 음이 태초에 태동했던 과정을 거슬러 찾아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했

다. 1955년 베를린 필 상처 이후 방향(?)했던 첼리비다케는 1979년 스트라우스 교향시의 대가이었던 캠페(독일, 1910~1976, Rudolf Kempe)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뮌헨 필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음악 인생의 절정을 구가했다. 첼리비다케는 17년의 재임 기간 동안 혼신을 다해 뮌헨 필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시켰다.

필자는 뮌헨에서 그가 지휘한 브루크너 7번 실황 녹음 CD를 기념으로 산 적이 있다. 음반가게 직원에게서도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클렘페러(독일, 1885~1973, Otto Klemperer), 뵘(오스트리아, 1894~1981, Karl Böhm)과 함께 첼리비다케도 특유의 느린 템포를 가지고 있는데, 음악잡지 ‘객석’에서 한 필자는 ‘연주회는 늘 예정보다 엄청나게 늦게 끝나는 일이 허다했지만, 청중들이 더 이상 고문을 참아낼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이 신비스럽게도 서로 겹쳐져 함께 흘러가는 선불교적 체험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첼리비다케는 선을 좋아했던 불자였고, 카라얀도 한 때는 불자였다.)

흔히 대조적인 평가를 받으며 비교되는 카라얀과 첼리비다케는 각자 최선을 다해 그들의 음악세계를 추구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런 분들이 우리들의 단순하고 지루한 시간적 흐름을 그 무엇에다 아름답게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말러 4번은 오래된 녹음이지만 루바토(rubato)에 뛰어났던 멩겔베르크(네덜란드, Willem Mengelberg, 1871~1951)의 연주를 들어 보길 추천한다.



4월 황세준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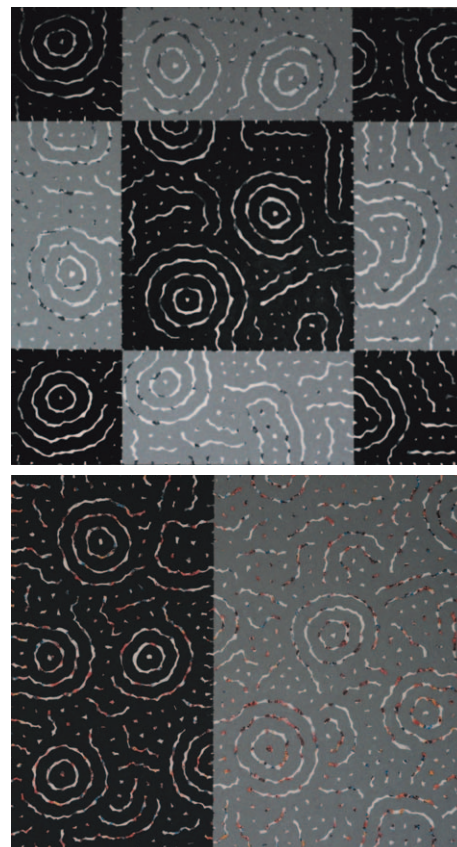


5월 류시호 초대전

‘내려놓기’를 주제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계를 표현

회화 작품 25점 전시

황세준 작가는 이번 초대전에서 ‘디지털(Digital+Analogue)’ 회화(디지털의 차갑고 이성적인 느낌과 따뜻한 감성의 아날로그 세계를 아우르는 개념)를 지향했다. 작가는 붓질을 통해 전체적으로 균등한 굴곡의 선들을 화면에 고르게 채워 넣는 행위를 반복적이고 천천히 행하며, 무한하고 풍부한 자아의 자유와 상처의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 동국대 미술학부 졸업
- 1998년부터 개인전 23회, 포스트미니멀 5인전 (2019), KCAA 한일 교류전 (2017) 등 20여 회의 단체 및 그룹전에 참여



‘相想(상상) 2019’

유화 작품 24점 전시

류시호 작가는 부산 MBC PD로 활동했던 경험과 그동안 살아온 삶의 그리움, 희망, 상상 등 다양한 감정을 작품에 녹였다. 작가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마음(想) 때문에 비록 고독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는 또 다른 나(相)가 존재한다고 믿으면 절대 고독은 없다”며 이러한 감정들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다.

-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
- 부산은행 갤러리(2016), 서울 인사아트센터 (2018), 중국 복건성 푸전시 (2018) 등의 개인전 개최. 부산문화방송 PD, 편성 제작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방송부산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13~‘17) 역임. 현재 (사)문화도시네트워크 사무총장, 부산문화방송 60주년 추진단장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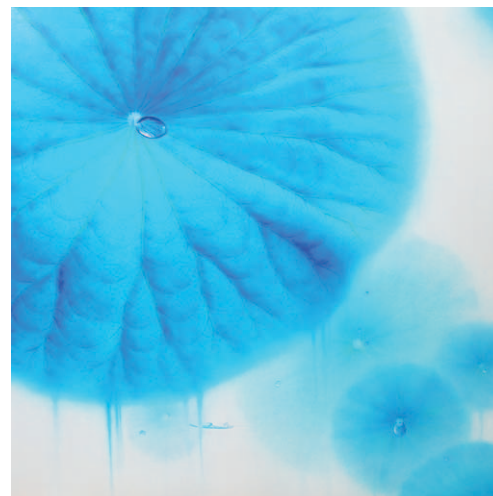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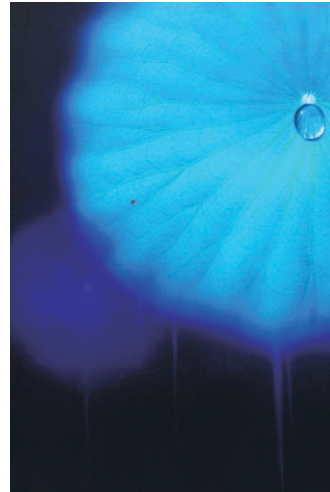
6월 남상운 초대전

‘희미하게 사라지고 드러나는’

‘Blue Moon-space’ 시리즈 25점 전시

남상운 작가의 작품 모티브인 블루문은 연잎이다. 작가에게 연잎은 현실과 가상 사이에 펼쳐진 블루 스크린으로,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자 가상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작가는 어린 시절 보았던 연잎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인이 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초기 작품에서 주로 보이는 극사실주의(하이퍼리얼리즘) 기법에 변화를 주어 최근에는 동양화적 기법인 선염법(번짐법)을 사용, 스토리 부여에 힘을 더했다.

- 경기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조형대학원 석사(미술학과), 홍익대 박사(미술학과) 졸업
- 더숲갤러리, 아트스페이스 어비움 등 개인전 개최, 1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 미술세계 대상전 입선(1993, 2012)을 시작으로 제23회 창작 미협 공모전 대상(2000), 제51회 개천미술 공모전 대상(2001) 등 다수 공모전 수상. 현재 경기대 예술대학원 초빙교수로 경기대를 비롯 서울교대, 전남대 등에 출강



(재)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전달식 개최

총 40명에게 4천3백여만 원 전달

2019학년도 1학기 (재)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 이상철) 장학금 전달식이 4월 15일 본관 7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우수한 인재들이 기부자의 고마운 마음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며 학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렸다.

장학금은 △발전기금 최우수(전체수석) 입학장학금 △발전기금 우수(과수석) 입학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지정장학금으로 나누어 총 40명에게 4천3백여만 원이 전달됐다.

한편, 1994년 설립된 (재)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은 장학기금, 학술연구기금, 도서기금, 시설확충기금, 대학사랑기금 등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기탁자에 대한 예우

순번	예우내용	10억원	5억원	1억원	5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50만원	10만원	예우신청 기준금액
1	홍상 또는 기념비	○										일시금
2	시설물 명칭 부여	○	○	○								일시금
3	장학기금 명칭 부여	○	○	○								일시금
4	학교행사 초청	○	○	○								누적금
5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	○	○	○							일시금
6	명절선물	평생	평생	평생	5회	1회						누적금
7	언론홍보(보도) (기탁자 희망시)	○	○	○	○	○						일시금
8	후원자 현황판 이름 각인	○	○	○	○	○						누적금
9	해오름연수원 (본인) 교직원 요금적용	평생	평생	20년	10년	2년	1년					누적금
10	기부 감사기념품 증정	○	○	○	○	○	○	○				일시금
11	골프학습관 이용료 면제 및 할인(본인)	100%	100%	100%/50%	100%/50%	100%/50%	100%/50%	50%	50%			누적금
		평생	평생	20년/평생 (택일)	10년/평생 (택일)	2년/10년 (택일)	1년/5년 (택일)	2년	1년			
12	차량 무료출입 등록(본인)/(1대)	평생	평생	평생	25년	5년	2년 6개월	1년	6개월			누적금
13	발전기금 달력 발송	평생	평생	평생								누적금
					10년	2년	1년	1년	1년	탁상용 달력		일시금
14	평생교육원 교육비 할인	100%	100%	100%	50%	30%	20%	10%	10%	10%		누적금
		평생	10년	5년	5년	3년	2년	2년	1년	6개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15	도서관 자료 대출/열람 (본인 또는 지정 1인)	평생	평생	평생	평생	10년	5년	2년	1년	6개월		누적금
16	통학버스 이용권 제공 (본인 또는 지정 1인)	평생	평생	평생	평생	10년	5년	2년	1년	6개월	1개월	누적금

- ※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예우별로 본인이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며, 혜택 받은 예우금액은 기탁 총금액에서 소멸됨
 - 누적금액 기준 예우 시 기탁한 총금액에서 기 제공 예우금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약정금액은 제외)
 - 기탁금액과 예우금액이 동일한 경우 아래 각 항목은 중복 신청이 불가함
 - ① ①골프학습관 이용료, ④ 평생교육원 교육비 할인, ⑤ 통학버스 이용권 제공 (1개 예우 선택)
 - ② ②차량 무료출입 등록, ⑥ 통학버스 이용권 제공 (1개 예우 선택)
 - 평생교육원 골프아카데미 강좌는 교육비 할인에서 제외됨
 - 상기 예우는 2011년 1월 이전 기탁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2014년 이전 교수의 연구간접경비는 적용 제외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약정서

※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기부자 정보

기부자(상호)명 ☐ 익명희망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우편물수령 주 소	(우)		연락처	자택 H/P	
본교와의 관 계	구 분	세 부 내 용			
	☐ 동 문	☐ 학부(과) :	☐ 대학원 :	☐ 최경과정 (기)	
	☐ 학 부 모	☐ 학생성명 :		☐ 학부(과) :	
	☐ 교 직 원	☐ 부서 :			
	☐ 기업/단체	☐ 회사명 :		☐ 대표자 :	

약정 정보

기부금종류	☐ 현금		☐ 유가증권	☐ 부동산	☐ 기타
기부금 용도	일반 기탁	☐ 대학사랑기금	☐ 장학기금	☐ 대학문화기금	☐ 도서기금
		☐ 시설확충기금	☐ 학술연구기금	☐ 연구기자재확충기금	☐ 행복한 아침밥
		☐ 1대학원생 후원 미래 연구자 장학금		☐ 기타 ()	
		◆ 특정 학부(동아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하시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10%를 공제하여 대학전체를 위한 일반기금으로 적립합니다. ◆ 기부금의 10%를 일반기금으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동의 안함 ☐			
	목적 기탁	☐ 지정장학기금 ☐ 학부()/대학원() ☐ 학과명 : ☐ 기타() ☐ 지원 동아리/부서 :			
약정 금액	일금 ₩ 원		추천인	추천인 성명 : ☐ 교수 ☐ 직원 ☐ 기타()	

납부 방법

직접입금	☐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사무국(본관 601호)		
계좌입금	☐ 납부예정일 : 년 월 일까지 납부(예정) ☐ 계좌번호 : 농협 785-01-037878 ☐ 예금주 :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CMS 자동이체 (분할납부)	CMS란? /제3자정보 제공동의	금오공과대학교가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CMS 자동이체를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거래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제3자(금융결제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인/서명)	
		예금주	(인/서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이체일 ☐ 1일 ☐ 15일
	납입기간	금 원씩(회) (년 월 ~ 년 월까지)	

위와 같이 금오공과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을 기부합니다.

년 월 일

약정자

(인/서명)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장 귀하



정문

젊은 선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 담당자 귀중

3 9 1 7 7

발전기금 모금 안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오공과대학교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문, 학부모, 교직원, 재학생, 독자가, 기업체, 기관, 단체 등 누구든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탁구분

- 일반기탁 :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학에 일임
- 목적기탁 : 대학 내 특정학과(부서) 등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기탁
 - 목적기탁 기부금의 10%는 일반기탁 기부금으로 공제(전환)됩니다.
 - CMS자동이체와 10만원 미만 일시금의 경우에는 공제(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발전기금의 종류 및 용도

대학사랑기금(대학에 일임)	대학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사용하도록 금오공과대학교에 용도 위임
장 학 기 금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도와 내실 있는 교육 실현
학술연구기금	학술연구 지원, 국제 학술교류 지원, 저명교수 초청 지원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 실현
도 서 기 금	국내·외 학술도서의 확충으로 교육의 질적인 향상 도모
시설확충기금	부족한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여건 개선
연구기자재기금	학문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최신 기자재 구입 및 기자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 활성화 추구
기 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발전기금 약정방법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kumch.ac.kr) “온라인 약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팩스, 이메일, 우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 > “기부참여하기” > “약정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방문 약정	· 전화상담 : 054-478-7080 · 주소 : (39177) 구미시 대학로 61, 본관 601호 발전기금 사무국

발전기금 납부방법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농협은행 785-01-037878 공대발전후원회로 입금하시고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Tel 054-478-7080)
CMS 자동이체	발전기금 약정서 작성시 자동이체(CMS)를 신청하시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이체 가능

